

회복과 감사의 예배

역대상 21:18-30, 찬송가 300장

1 기도 가족 중 한 사람이 기도를 하거나 아래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택하시고, 복음을 듣게 해 주시고, 사랑받는 자녀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치열한 삶의 전투 속에 실수하고 넘어졌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성경읽기

새번역 성경

18 주님의 천사가 갓을 시켜,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하였다.
 19 다윗은, 갓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말씀에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20 그 때에 오르난은 밭을 타작하고 있었다. 오르난은 뒤로 돌이키다가 천사를 보고, 그의 네 아들과 함께 숨었다.
 21 그러나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가가자, 오르난이 바라보고 있다가 다윗인 것을 알아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였다.
 22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이 타작 마당을 나에게 파시오.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단을 여기에 쌓으려 하오. 그러면 전염병이 백성에게서 그칠 것이오.”
 23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그냥 가지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소는 번제물로, 타작 기구는 땀감으로, 밭은 소제물로, 모두 드리겠습니다.”

24 그러나 다윗 왕은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오. 내가 반드시 충분한 값을 내고 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릴 것인데, 내가 값을 내지도 않고, 그대의 물건을 그냥 가져 가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거저 얻은 것으로 번제를 드지도 않겠습니다.”
 25 그래서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육백 세겔을 오르난에게 주고,
 26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께 아뢰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번제단 위에 내려서 응답하셨다.
 27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셔서, 그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다.
 28 그 때에 다윗은, 주님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29 그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30 다윗은 주님의 천사의 칼이 무서워, 그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3 본문 설명

하나님은 갓을 통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예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다윗은 오르난에게 타작마당을 비롯하여 제물과 제사에 쓸 물건을 거저 얻을 수 있었지만 금 육백 세겔의 충분한 값을 치루고 삽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온전한 헌신을 뜻하는 번제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뜻하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 주셨고, 천사에게 형벌을 멈추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인생의 막힌 문제도, 공허함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시작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문제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통의 시간에 어떠한 자리를 찾아갑니까? 지금 내가 결단하고 회복해야 할 예배의 자리와 모습은 무엇일까요?

4 삶의 나눔

5 함께하는 기도

6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요약

One-Point 목상

1 목상구절 절

2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

3 오늘의 삶

4 적용

5 기도